

적용적 성경해석학으로서의 큐티(QT): 김양재의 설교에 나타난 구속사적 본문 읽기와 삶의 해석*

Quiet Time as an Applied Biblical Hermeneutic: Redemptive-Historical Read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Life in the Preaching of Kim Yang-jae

심양섭 (Yangsup Shim)**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the Quiet Time (QT) practice embedded in the preaching of Kim Yang-jae functions not merely as a device of personal piety but as a mode of applied biblical hermeneutics that integrates redemptive-historical reading with the interpretation of congregational life. The corpus consists of seven expository sermons on 2 Kings 18-19 preached in 2025 and the concluding sermon of the 2 Samuel series, “The Plague Was Stopped” (2 Samuel 24), which provides the preacher’s clearest account of the congregational practice of confession known as “Open.” The study locates applied biblical hermeneutics in dialogue with Hirsch, Gadamer, Ricoeur, and Osborne. Analysis of the sermon transcripts identifies a recurring sequence—exposition, redemptive-historical transition, applicatory questioning, and congregational testimony—through which application is placed under redemptive-historical control. It also formulates Open as a Word-governed practice of confessing sin and shame toward communal restoration. Finally, the study examines five objections: allegorical overreach, conflation of private confession with structural guilt, erosion of congregational interpretive autonomy, blurring of therapeutic and evangelical care, and the circularity of Open. It offers qualified responses while leaving congregational autonomy and circularity as open questions requiring further empirical research.

Key words: quiet time (QT), Kim Yang-jae, Wooridle Church,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pplied biblical hermeneutics, THINK ministry, open (confession)

* 2026년 8월 4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2일 게재확정

** 한국정치학회(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정치학 박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11, ysgoodfriend@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교회 설교학은 1990년대 이후 두 갈래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 왔다. 한편으로는 본문의 신학적 무게를 회복하려는 강해 설교(expository preaching)와 구속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의 부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의 삶과 문화에 응답하는 적용 중심 설교의 요구가 거세졌다. 양자의 긴장 속에서 “본문의 권위와 청중의 실존을 어떻게 동시에 책임질 것인가”는 여전히 한국 설교학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정성구, 1987: 14-20).

이러한 지형 위에서 우리들교회 담임 김양재 목사의 설교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김양재는 큐티(Quiet Time, 이하 QT)를 단순한 개인 경건의 도구가 아니라 강단 설교의 해석학적 토대로 삼았으며, 동시에 회중의 공적 죄 고백과 가정 회복이라는 구체적 삶의 변혁을 설교의 종착점으로 설정했다. 2008년 이래 ‘THINK 목회 세미나’를 통해 그 방법론을 국내외 1,200여 교회와 공유해 왔으며(김진영, 2022),¹ 미주 한인 교회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고백 공동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회중 실천의 핵심에는 ‘오픈(Open)’이라 불리는 공개적 죄 고백 행위가 자리하는데, 그 신학적 정의는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무엘하 강해설교 마지막회 「재앙이 그쳤더라」에서 가장 명료하게 제시된다.

2. 연구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김양재의 설교에 나타난 QT 실천이 “적용적 성경해석학(applied biblical hermeneutics)”의 한 양식으로 기능함을 논증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적용적 성경해석학이란, 본문의 의미(meaning)와 의의(significance)를 분리하지 않고, 구속사적 본문 읽기와 회중의 삶의 해석을 하나의 해석 회로 안에서 통합하려는 해석학적 기획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연구자가 임의로 조어한 것이 아니라, 허쉬(E. D. Hirsch)의 의미/의의 구분(Hirsch, 1967: 8, 63)과 가다머(H.-G. Gadamer)가 적용(Anwendung)을 이해의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이해 자체의 구성 계기로 규정한 논의(Gadamer, 2004: 306-310), 그리고 오스본(G. R. Osborne)의 해석학적 나선(Osborne, 2006: 22-24)에 기대어 구성한 것이다. 그 이론적 정초는 II 장 3절에서 상술한다.

본 연구는 김양재의 ‘THINK’ 목회 철학—Telling(죄 고백·간증), Holifying(거룩), Interpreting(말씀 묵상), Nursing(공동체 돌봄), Keeping(가정 적용)—을 분석틀로 삼아, 그것이 종교개혁

1) 2022년까지 1,200여 교회, 3,300여명의목회자와사모, 평신도지도자가 THINK 목회세미나에참여하였다.

의 다섯 솔라(Five Solas)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유비되는지, 그리고 본문—청중—적용을 잇는 삼중 해석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김보경, 2014). 분석 대상은 (1) 2025년 3~6월 우리들교회 주일설교 가운데 열왕기하 18~19장을 다룬 7편의 강해설교—「네 의뢰가 무엇이냐?」(왕하 18:9-19, 2025.3.2), 「상한 갈대」(왕하 18:20-27, 2025.3.9), 「반드시 건지실지라!」(왕하 18:28-37, 2025.4.27), 「살아 계신 하나님」(왕하 19:1-7, 2025.5.4),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왕하 19:8-19, 2025.5.11), 「산헤립 때문에」(왕하 19:20-28, 2025.6.1), 「보호하여 구원하리라」(왕하 19:29-37, 2025.6.8)—와 (2) THINK의 첫 원리인 Telling의 신학적 근거를 가장 밀도 있게 서술한 사무엘하 강해설교 마지막회 「재앙이 그쳤더라」(삼하 24:16-25, 2015.4.12)로 한정한다.

다만 김양재는 다수의 설교집과 단행본을 공간(公刊)해 왔으므로, 특정 시기의 연속 강해 한 계열만을 표본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한계다. 본 연구는 이 한계를 인정하되, 표본을 보완하기 위해 그의 대표 저작인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김양재, 2010)을 2차 자료로 함께 검토하여 설교 발언과 저술 사이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다수 설교집을 망라하는 통시적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3. 선행연구 검토

김양재와 우리들교회를 신학적으로 다룬 학술 연구는 아직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다만 강영안은 우리들교회의 묵상 방식이 기독교 전통의 성경 읽기 및 묵상 방식에 충실할 뿐 아니라 동서양의 독서법 전통과도 잇닿아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강영안, 2020), 제1회 THINK Forum(2018.10.18)에서는 공적 죄 고백 공동체 형성의 신학적 의의와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 바 있다(윤지숙, 2018).

구속사적 설교학 일반의 흐름에서는 보스(G. Vos)의 성경신학, 클라우니(E. Clowney)의 구속사적 설교학, 그레이다누스(S. Greidanus)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표준적 좌표를 형성한다(Vos, 1948; Clowney, 1961; Greidanus, 1999).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김양재 자신이 설교나 저술에서 이 세 신학자를 명시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이들을 좌표로 삼는 것은 설교자의 자기 진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자가 그의 설교를 국제 설교학 논의 안에 위치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석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비교는 영향 관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해석임을 밝혀 둔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본문 분석을 병행한다. 1차 자료로는 앞서 밝힌 열왕기하 18~19장 강해 7편 및 사무엘하 강해설교 「재앙이 그쳤더라」의 설교 영상과 그 전사본(轉寫本)을, 2차 자료로는 큐티엠(QTM) 간행 인터뷰 및 단행본, THINK 세미나 자료, 구속사적 설교학·실천신학 분야의 표준 단행본 및 학술논문을 활용한다(김양재, 2015; 2025a; 2025b; 2025c; 2025d; 2025e; 2025f; 2025g).² 본문 분석은 (i) 본문 선택의 패턴, (ii) 본문 강해의 해석학적 절차, (iii) 적용의 수사학적 구조, (iv) ‘오픈’ 개념의 정의적 구성요소라는 네 층위에서 진행되며, 이 네 층위에 따른 종합은 IV장 6절에 별도로 배치한다. 직접 인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의뢰가 무엇이나?」, 「상한 갈대」, 「반드시 건지실지라!」의 인용에는 공개 영상을 대조·교정한 연구자 전사본의 쪽수를 병기하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공개 영상에서 재확인한 타임코드를 병기하였다. 전사본은 공개 영상의 보조 확인 자료로서 심사·편집 과정에서 요청될 경우 제시할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를 밝혀 둔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회의 등록 교인이며 일대일 양육자로 섬기고 있고, 분석 대상 설교를 현장에서 청취하였다. 이는 설교 자료와 회중 실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조건인 동시에, 평가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 이해관계를 은폐하지 않고 명시하며,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V장 3절에서 제기되는 비평 가운데 두 항목을 해소하지 않고 열린 쟁점으로 남겨 두는 서술 방식을 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구속사적 해석학과 큐티 전통

1. 구속사적 성경해석의 신학적 기초

구속사적 해석학(redemptive-historical hermeneutics)의 현대적 형성은 게할더스 보스(Geerdhardus Vos, 1862-1949)의 성경신학에서 출발한다. 보스는 성경을 단순한 교리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했다. 그의 『성경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로 읽는 해석학적 틀을 제시하여, 이후 설교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Vos, 1948: 5-16).

2) 본연구가 인용하는 설교발언은 유튜브 공개 영상을 음성인식으로 전사한 뒤 연구자가 대조·교정한 전사본에 근거한다. 인용문은 구어의 반복어와 간투사만 최소한으로 정리하였으며, 어휘와 어순은 변경하지 않았다. 영상자료의 특성상 쪽수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설교일자과 저자·연도를 출처를 밝히고, 별도로 확인한 구간이 있는 경우에만 하위 타임코드를 병기한다.

보스의 성경신학은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 1917-2005)에 의해 설교학으로 발전한다. 클라우니는 설교자가 본문의 “신학적 상징”을 추적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의 성취 안에서 설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노선에서 개별 본문은 고립된 교훈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순간”으로 읽힌다(Clowney, 1961: 74-78).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이 전통을 더 체계화하여,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곱 가지 길을 제안한다: (1) 구속사적 진행, (2) 약속-성취, (3) 모형론, (4) 유비, (5) 종적 주제, (6) 신약적 참조, (7) 대조. 그는 본문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진정성 있게 통합하는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정의로 제시하며,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범론(exemplarism)의 위험을 경계한다(Greidanus, 1999: 203-277).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 역시 모든 본문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초점(Fallen Condition Focus)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된다고 봄으로써, 적용을 본문 밖에서 덧붙이는 부록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신학적 요구로 자리매김한다(Chapell, 2018: 50-53). 한국에서는 정성구 등이 이 흐름을 강해 설교 전통과 결합해 왔으며(정성구, 1987), 김양재는 이 구속사적 설교 노선을 큐티라는 평신도 친화적 형식으로 번역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큐티(QT) 운동의 신학적 계보

큐티는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개인 묵상 전통과 18세기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발전한 복음주의 경건 훈련의 한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형성과 확산을 하나의 단선적 계보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의 큐티 운동을 역사적·신학적으로 검토한 정성국·지형은·송인규는 경건주의적 말씀 묵상 전통과 한국교회의 경건 훈련 변화, 새벽기도와 QT의 관계를 함께 다룬다(정성국 외, 2015: 81-228).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QT를 성경 읽기·기도·자기 성찰·적용을 결합하는 말씀 묵상 실천으로 이해한다.

한국교회에서 QT는 1960~70년대 이후 성서유니온과 학생복음운동 단체, 교회 사역을 통해 확산되었고, 1980~90년대를 거치며 대표적인 평신도 경건 양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정성국 외, 2015: 145-228). 그러나 한국 QT 전체를 ‘적용 일변도’로 일반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보다 제한적으로 말하면, 김지찬은 한국교회 설교에서 ‘QT 수준’의 해석이 본문을 사사화·심리화하고 적용을 정형화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김지찬, 2013: 261-290). 본 연구는 이 비판을 한국 QT 전체에 대한 경험적 판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본문의 역사적·신학적 의미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채 개인 적용이 앞설 수 있는 해석학적 위험을 지적하는 준거로 사용한다. 오스본이 본문의 의미 확정 이전에 적

용을 선행시키는 독법을 해석학적 나선의 역행으로 경계하고(Osborne, 2006: 410-415), 그레이다 누스가 모범론적 독법을 구약 설교의 지속적 위협으로 지적한 것(Greidanus, 1999: 161-166)도 같은 문제의식에 놓인다.

김양재의 기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는 때마다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며 자기에게 맞는 구절만 뽑아 읽는 독법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바이블앤뉴스, 2016). 따라서 그의 QT는 적용을 약화시키기보다 적용 이전과 그 과정에 구속사적 통제(redemptive-historical control)를 두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적용적 성경해석학’의 이론적 정초

본 연구의 표제 개념인 ‘적용적 성경해석학’은 기존 해석학 논의와 무관한 신조어나 독립된 새 해석학 학파를 선언하는 명칭이 아니라, 김양재의 QT 설교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범주다. 이 개념은 적용을 이해의 사후 단계로만 보지 않는 세 갈래 논의의 접점에서 성립한다.

첫째, 허쉬는 본문이 저자의 의도에 결부된 고정된 의미(meaning)를 지니며, 그 의미가 시대와 독자에 따라 맺는 관계를 의의(significance)로 구분했다(Hirsch, 1967: 8). 이 구분은 적용의 정당한 자리를 확보해 주는 동시에 적용이 의미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운다. 본 연구가 김양재의 설교를 “적용적”이라 부르면서도 “구속사적 통제”를 함께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둘째, 가다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법률가와 신학자의 해석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적용이 이해와 해석에 뒤따르는 제3의 절차가 아니라 이해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규정하는 계기임을 논증했다(Gadamer, 2004: 307-311). 이 관점에서 보면 회중의 삶을 향한 적용은 본문 이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본문이 오늘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리코르의 전유(appropriation) 개념 역시 텍스트 앞에서 열리는 세계를 독자가 자기 것으로 삼는 과정을 해석의 종착이 아닌 완성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에 선다(Ricoeur, 1976: 91-95).

셋째, 오스본의 해석학적 나선은 본문에서 의미로,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운동을 통해 해석이 자의성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재적 적용에 도달하는 경로를 제시한다(Osborne, 2006: 22-24). 강해 설교학의 표준 교본이 적용을 설교 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본문 분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obinson, 2014: 87-90).

본 연구가 말하는 적용적 성경해석학은 이 세 논의를 전제하되, 그 적용의 주체를 개별 독자가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구성하는 해석 공동체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가다머와 리코르

가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텍스트-설교자-회중이라는 삼항 관계이며, 적용의 결과가 개인의 지평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공개적 고백이라는 가시적 실천으로 외화(外化)된다는 점이다. 이 외화의 양식이 곧 Ⅲ장 5절에서 다룬 ‘오픈’이다.

4.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와 ‘THINK’의 해석학적 유비

우리들교회 THINK 세미나 자료와 여러 목회 문헌을 분석하면, 김양재의 ‘THINK’ 5대 원리는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Five Solas)와 다음과 같은 해석학적 유비 관계로 읽을 수 있다.³⁾

(1) Telling(죄 고백·간증)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오직 믿음(Sola Fide)’과 유비적 접점을 갖는다. (2) Holifying(거룩)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연결된다. (3) Interpreting(말씀 묵상)은 성경 본문을 삶 해석의 최종 권위로 삼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가장 직접적인 유비를 이룬다. (4) Nursing(공동체 돌봄)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지체를 돌보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의 교회론적 반향으로 읽을 수 있다. (5) Keeping(가정 적용)은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과 연결된다.

다만 이 대응의 층위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Sola Fide는 칭의의 도구인(instrumental cause)에 관한 교리적 명제이고 Solus Christus는 중보자의 유일성에 관한 기독교론적 명제인 반면, Telling과 Nursing은 각각 고백 행위와 공동체 돌봄이라는 실천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구조적 상응”이 아니라 “해석학적 유비”로 규정하며, 다섯 솔라의 교의적 내용이 THINK의 다섯 항목으로 번역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유비가 갖는 의미는, 김양재의 목회 방법론이 실용적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종교개혁 신학의 강조점을 회중의 실존적 차원으로 옮겨 놓으려는 신학적 기획임을 드러내는 데 한정된다.

3) 이대응구조는 THINK 목회세미나공식자료(큐티엠, n.d.) 및 「목회와신학」스페셜인터뷰(김보경, 2014)에 나타난내용을분석하여본연구가재구성한것이다. 우리들교회공식문서가이대응을명시적으로제시한바는없으며, 본연구는이를개념적동일성이아니라해석학적유비로제한하여사용한다.

III. 김양재의 신학적 배경과 큐티목회의 형성

1. ‘목욕탕 목회’의 형성 배경

김양재는 우리들교회를 개척한 이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목욕탕처럼,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 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치유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목회 모델을 제시해 왔다(김보경, 2014). 이 ‘목욕탕 스피릿’은 한국 교회의 체면 중심 신앙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공개적 죄 고백 전통과의 접속점을 갖는다(이덕주, 2006: 200-230).

이는 단순한 심리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의 자기 비움(kenosis)과 공동체 안에서 화해(reconciliation)를 동시에 지향하는 행위다. 공개적 죄 고백이 가능하려면 공동체 안에 “정죄 없는 수용”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들교회는 이를 “목장 공동체”라는 소그룹 구조를 통해 제도화했다. 이 모델이 한국교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 해체, 관계 단절이 낳은 영적·정서적 공백이 있다. 이 논리는 아래 5절에서 다루는 ‘오픈(Open)’ 개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식화된다.

2. ‘Simple & Deep’ 모토의 해석학적 함의

우리들교회의 모토 ‘Simple & Deep’은 본문 강해의 단순성과 적용의 깊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해석학적 선언이다. 이는 해석학적 전문성을 회중의 실존적 절박함과 단절시키지 않으려는 시도이며,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을 경계한다. 하나는 단순함만 남고 깊이가 없어지는 위험으로, 이 경우 설교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지만 청중의 입맛에 맞는 위로와 격려만 제공하는 교훈 담화로 전락한다. 다른 하나는 깊이만 추구하다 단순함을 잃는 위험으로, 이 경우 설교는 학문적 정교함을 갖추지만 회중의 삶과 유리되어 강단에서 고립된 신학 강의가 된다.

김양재는 이 두 위험 사이에서 평신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본문 강해와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깊은 적용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 모토는 해석학적으로 볼 때, 허쉬가 구분한 의미와 의의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설교 안에서 통합하려는 설계로 읽을 수 있다(Hirsch, 1967: 8, 63).

3. ‘THINK’ 5대 원리의 구조

THINK는 우리들교회 사역 전 영역을 관통하는 신학적·실천적 코드다. 이 다섯 원리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회로 안에서 순환적으로 작동한다(큐티엠, n.d.; 윤지숙, 2018).

Telling(죄 고백과 간증)은 하나님-자신-이웃-피조세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죄 고백으로 정의된다. Ho-

lifying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성도의 삶의 양식이다. Interpreting은 구속사적 말씀 묵상으로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며,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는 동시에 내 삶을 본문의 빛 아래서 재해석하는 쌍방향 과정을 포함한다. Nursing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돌보는 목장 공동체 사역으로, 소그룹 안에서의 경청, 기도, 물질 나눔,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 Keeping은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가정과 이웃 살림의 적용으로, 큐티에서 받은 말씀을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 다섯 원리의 순환 구조는 QT(Interpreting)가 죄 고백(Telling)을 낳고, 죄 고백이 거룩(Holyfying)을 지향하며, 거룩이 공동체 돌봄(Nursing)으로 흘러가고, 공동체 돌봄이 가정과 이웃의 구체적인 삶에서 완성(Keeping)되는 흐름을 형성한다. 이 회로는 개인 경건과 공동체 삶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제자도(integrated discipleship)의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4. 큐티엠(QTM)과 큐티 운동의 제도화

김양재의 큐티 모회는 개인의 묵회 방법론에 그치지 않고, 큐티엠(QTM, Quiet Time Ministries)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큐티엠은 월간 큐티묵상지를 발행하고, THINK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온·오프라인 큐티 훈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큐티엠, n.d.). 이를 통해 김양재의 해석학적 방법론은 우리들교회 담장을 넘어 한국 전역과 해외 한인 교회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아멘넷, 2025). 이 점은 본 연구가 QT를 ‘적용적 성경해석학’의 사례로 규정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다.

5. ‘오픈(Open)’의 신학적 정의와 성경적 근거

앞선 절들에서 다룬 ‘목욕탕 묵회’와 THINK의 Telling 원리는 우리들교회에서 흔히 ‘오픈(Open)’이라 불리는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이 개념의 가장 명료한 신학적 준거는 사무엘하 강해설교 마지막회 「재앙이 그쳤더라」(삼하 24:16-25)에서 제시된다. 이 설교는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와 그로 인한 전염병 재앙,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 서사를 구속사적 지평에서 해석하며, 네 개의 설교 대지로 전개된다(김양재, 2015).

제1대지는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실 때 재앙이 그친다(16절)는 것으로, 여기서 뉘우치심은 인본주의적 후회가 아니라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때를 정하시는 주권적 시점으로 해석된다. 제2대지는 성도의 죄를 목자의 죄로 알고 회개할 때 재앙이 그친다(17절)는 것으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타인을 정죄하기에 앞서 결론은 언제나 ‘내 탓’이라는 목자의 심정을 요구한다. 제3대지

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재앙이 그친다(18-23절)는 것으로, 무시받고 소외된 이방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강조한다. 이 장소는 역대하 3:1에서 솔로몬 성전 터인 모리아산과 연결되며, 설교는 이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예배 회복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읽는다. 제4대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그친다(24-25절)는 것으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처럼 온전한 회복은 희생·손해·복종을 동반하며, 그 최고의 값지불은 자기 죄를 직면하는 ‘십자가 적용’이라고 선포한다.

이 네 대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오픈(Open)’이다. 오픈은 세속적 성공담이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말씀(Interpreting)의 통제 아래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공동체 앞에 고백(Telling)하는 실천으로 제시된다. 설교자는 이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와 유비적으로 연결하지만, 고백 자체에 제의적 효력을 부여한다기보다 회개·화해·예배 회복의 현재적 적용으로 설명한다. 그 정의는 다섯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오픈은 성공의 과시보다 죄와 수치의 고백을 우선한다. ② 오픈은 독립된 목회 기법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는 열매이며, 오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고백은 경계된다(김양재, 2015). ③ 오픈은 돌발적인 대형 사건에서 시작되기보다 일상의 작은 말씀 묵상과 자기 성찰에서 축적되는 훈련이다(김양재, 2015). ④ 오픈은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기보다 자기 죄를 보는 행위다. ⑤ 오픈은 개인적 카타르시스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회복, 곧 설교가 말하는 ‘재앙이 그침’을 지향한다.

이 설교의 특기할 점은, 김양재가 이 다섯 명제를 추상적 교훈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과 그에 따른 교회의 공적 처분을 강단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예증한다는 데 있다(김양재, 2015). 본 연구는 논증에 필요한 것이 “설교자가 자신의 가정사를 강단에서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이며 그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바 없는 제3자의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기술하지 않는다. 이는 설교자 자신부터 회중과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강력한 “설교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보여 준다. 이 사례는 IV장 5절 및 V장에서 논하는 ‘설교자의 자기 노출을 매개로 한 오픈의 전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구체적인 1차 증거다.

IV. 김양재 설교에 나타난 구속사적 본문 해석의 실제

1. 분석 대상 설교의 선정

본 절에서는 2025년 3~6월 사이 우리들교회 주일설교 가운데 열왕기하 18~19장을 다룬 7편의 강해설교를 분석 표본으로 삼는다. 3월 초와 4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주 연속 설교가 아니라 열왕기하 본문을 순차적으로 완주하는 lectio continua 방식—절기·특별집회 등으로 인한 간헐적 배치를 포함한—의 산물로 판단된다.

표본 선정의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동일한 역사서 본문을 순차적으로 강해한 설교군이므로, 설교자 특유의 본문 독법과 적용 방식이 누적적으로 드러난다. 둘째, 히스기야의 위기—랍사게의 조롱—기도—이사야의 응답—앗수르 심판으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가 비교적 선명하여, 본문 이해와 회중 적용의 연결 방식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해당 설교들은 공개된 주일설교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동일 설교권에 속하므로, 자료의 통일성과 비교 가능성이 확보된다.

2. 본문 선택과 강해 방식의 특징

첫째, 김양재의 설교는 열왕기하 18~19장을 분절된 예화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위기 서사로 따라가는 lectio continua, 곧 연속 강해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각 설교는 이전 설교의 문제 제기를 이어받고 다음 설교의 신학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중간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이 설교군의 핵심 특징은 본문의 역사적 정확과 회중의 실존적 정확을 중첩시키는 이중 코드의 적용 방식이다. 열왕기하 18~19장의 표면 서사는 앗수르 제국의 침공과 유다 왕국의 위기이지만, 설교에서는 이 위기가 회중 각자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갈등, 경제적 불안, 수치와 두려움의 경험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히스기야가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기도하는 장면(왕하 19:14)은, 회중이 자기 삶의 수치와 위협을 QT 가운데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행위와 연결된다.

이 대목은 Ⅲ장 5절에서 분석한 ‘오픈’의 신학적 문법과 공명한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펼쳐 놓는 행위와 다윗이 아라구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치르고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는, 시대와 본문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수치를 하나님 앞에 여는(open)’ 구조를 공유한다. 셋째, 연속 강해의 중착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지향한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유다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모범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참 왕을 예표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3. 표본 설교 분석: 일곱 국면의 전개

표본으로 채택한 일곱 편의 설교는 히스기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가 반전되는 하나의 연속된 궤적을 이루며, 다음과 같이 일곱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 가운데 앞의 세 국면에 대해서는, 본문 강해가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행하는 실제 발화를 전사본에서 직접 인용하여 제시한다. 요약만으로는 ‘인물의 실패—회중의 죄 직면—오픈과 회개’라는 흐름이 두드러져 모범론적 독법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면 1: 우상의 폭로 —「네 의뢰가 무엇이냐?」(왕하 18:9-19, 2025.3.2)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함락된 궁극적 원인은 군사력의 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따르지 않은 데 있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9-12절),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전 기둥의 금과 왕궁 곳간의 은을 벗겨 조공으로 바치는 인본주의적 타협(13-16절), 그리고 랍사게가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17-19절)고 던지는 조롱을 다룬다. 설교는 이 조롱을 신자가 몰래 붙들고 있던 돈·학벌·배경이라는 우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해석한다.

이 설교에서 본문이 구속사로 이행하는 지점은 다음 발화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구속사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 인생이 구속사라는 걸 믿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구속받아야 할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7)

이어 설교자는 인물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물이 구속사의 계보에 놓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셉의 후손 같은 모든 걸 갖춘 사람과 ... 유다의 후손 같은 사람 중에 유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7)라는 발화가 그것이다. 이는 창세기 38장의 유다를 그리스도의 계보(마 1:3) 안에 배치하는 전형적인 구속사적 독법이며, 본문의 인물을 모방 대상으로 제시하는 모범론과는 방향이 반대다. 설교는 세속사와 구속사를 대비하며 이 점을 반복한다. “세속사는 억울하고 분하고 잘나고 교만한 거예요. 구속사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8). 히스기야의 위기는 본받을 모범이 아니라 회중이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계기로 재배치되는 것이다.

국면 2: 수치의 직면 —「상한 갈대」(왕하 18:20-27, 2025.3.9)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세력이 오히려 손을 찌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랍사게의 폭

로(20-21절), 온전한 예배 회복 없는 종교적 자부심에 대한 조롱(22-25절), 그리고 신하들이 수치스러운 실상을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말 대신 아람 말로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26-27절)을 다룬다. 설교는 이 대목에서 ‘아람 말’(은폐)과 ‘유다 말’(공개)의 대비를 통해, 성도가 자기 실상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여 공동체 앞에 오픈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 설교에서 구속사적 이행은 설교 본문보다 설교를 맺는 기도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주여, 환경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김양재, 2025b, 연구자 전사본: 12-13)

여기서 ‘상한 갈대’의 지시 대상이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상한 갈대는 유다가 헛되이 의지한 애굽이지만, 설교의 결론에서 상한 갈대는 회중 자신이 되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체로 이사야 42장 3절의 여호와와 종이 호출된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환은 임의적 연상이 아니라 그레이다누스가 말한 ‘종적 주제’와 ‘약속-성취’의 경로를 따른 이행이다(Greidanus, 1999: 220-227). 아울러 “환경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대비는 이 설교가 회중의 상황 개선을 목표로 삼지 않음을 스스로 명시하는 진술이다.

국면 3: 유혹과 침묵의 회개 —「반드시 건지실지라!」(왕하 18:28-37, 2025.4.27)

랍사게가 항복하면 풍요를 주겠다고 백성을 직접 선동하는 장면(28-35절)과,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이 랍사게의 독설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히 옷을 찢는 장면(36-37절)을 다룬다. 항복 권유는 거룩(Holifying)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한 행복을 주겠다는 세속주의의 전형적 유혹으로 해석되며, 인간적 변명을 그치고 말씀 앞에서 죄를 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로 제시된다.

이 설교에서 구속사적 통제는 가장 뚜렷하게 발화된다. 설교자는 랍사게의 선동에 넘어가는 백성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택한 무리와 겹쳐 놓은 뒤, 본문의 ‘건지심’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바라바의 세상 방법이 아닌, 로마를 총칼로 물리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김양재, 2025c, 연구자 전사본: 3)

나아가 설교는 건지심의 근거를 인간 편의 자격이나 성취에서 명시적으로 떼어 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건지시는 거예요”(김양재, 2025c, 연구자 전사본: 10)라는 발화가 그것이다. 결론부의 지향점 역시 본문 속 인물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

스도에게 놓인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인 거예요”(김양재, 2025c, 연구자 전사본: 10). 이 세 발화는 본 논문이 말하는 ‘구속사적 통제’가 연구자의 해석적 부여가 아니라 설교 자체의 명시적 발화임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다.

국면 4: 기도와 해석의 전환 —「살아 계신 하나님」(왕하 19:1-7, 2025.5.4)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는 장면(1-2절), ‘남은 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3-4절), 그리고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선언(5-7절)을 다룬다. 회중이 겪는 억울함과 분노의 근본 원인을 ‘내가 옳다’는 자기 의와 교만에서 찾는 이 설교의 특기할 점은, 설교자 자신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강단에 선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고 자백하는 대목이다.⁴ 이는 설교자가 회중보다 더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오픈 공동체의 수행성을 완성하는 사례이며, Ⅲ장 5절에서 정의한 오픈의 다섯 명제 가운데 ④가 열왕기하 본문 위에서 재현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국면 5: 해석권의 이양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왕하 19:8-19, 2025.5.11)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 그것을 그대로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 놓고(14절) 기도하는 장면을 다룬다. 이 행위는 수치와 위협의 해석권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몸짓으로서, 오픈의 첫 번째 명제—죄와 수치를 감추지 않고 여는 행위—가 개인의 기도 형식으로 구체화된 사례다(김양재, 2025e).

국면 6: 구속사적 재배치 —「산헤립 때문에」(왕하 19:20-28, 2025.6.1)

위기의 중심에 있던 앗수르 제국의 오만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며,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설교다. 회중은 자기 삶을 압도하던 문제의 크기보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도록 초청받는다(김양재, 2025f).

국면 7: 영적 역전과 완성 —「보호하여 구원하리라」(왕하 19:29-37, 2025.6.8)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29-31절), 하나님이 친히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선언(32-34절), 그리고 앗수르 군대의 몰락과 산헤립의 최후라는대반전(35-37절)을 다룬다(김양재, 2025g). 이 국면은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

4) 김양재(2025d)의 24:19 및 53:23 구간. “내가 칭찬받아야 교만한 인생이라 성도들이 기도를 못받는다, 내 회개 가온전 치 못해 여러 분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타난다.

호하심 아래 거하는 거룩의구원임을 천명하며, 일곱 편에 걸친 연속 강해 전체의 구속사적 완결점을 이룬다.

4. 텍스트-청중-적용의 삼중 해석 구조

김양재의 설교는 다음 세 층위가 하나의 회로로 작동한다. (i) 본문 관찰(observation): 본문의 문맥·인물·사건을 평신도가 따라올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정리한다. (ii) 구속사적 해석(interpretation):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사건을 정경 전체의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설명한다. (iii) 실존적 적용(application): 회중의 가정·결혼·자녀·직장의 구체적 상황으로 본문을 끌어와, 회중 자신의 죄 고백과 십자가의 길로 귀결시킨다. 이 삼중 구조는 보스 계열의 성경신학이 강조하는 본문의 신학적 깊이와 한국 평신도 큐티 운동이 강조해 온 오늘의 적용을 통합하는 한국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5. 스토리텔링 설교와 간증·오픈의 결합 양상

김양재 설교의 또 다른 특징은 본문 강해와 회중 오픈(간증)의 통합이다. 그는 강단에서 본문을 강해한 뒤, 그 본문으로 살아난 성도의 간증을 동일한 설교 안에 직조한다. 지난 10년간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를 통해 큐티를 나누며 죄를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김보경, 2014) 설교자 자신부터 회중과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서는 설교의 수행성을 보여 준다. 앞서 3절에서 확인한 두 사례—「살아 계신 하나님」에서의 자기 교만 자백과 「재앙이 그쳤더라」에서의 가정사 언급—은 이 수행성이 일회적 수사가 아니라 여러 본문에 걸쳐 반복되는 설교학적 패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픈의 통합은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 행위에서 공동체적 경험 행위로 전환시킨다. 회중은 설교 안에서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그 반추가 다시 다음 주 QT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들교회 사역 구조에 따르면 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목장 모임을 갖고 큐티 적용을 나누는 훈련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으며(김보경, 2014), 이는 설교의 적용이 강단을 넘어 공동체적 실천 회로로 확장된 사례다.

6. 네 층위에 따른 종합

이상의 시간 순 서술을 I 장 4절에서 제시한 네 층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본문 선택의 패턴. 일곱 편은 예화 중심의 주제 설교가 아니라 한 서사 단위를 순차 완주하는

lectio continua를 따른다. 본문 선택이 설교자의 관심사나 회중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의 순서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은, 적용 우위의 큐티 독법이 통상 노출하는 발췌주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첫 번째 장치다.

(ii) 해석학적 절차. 세 편의 전사본 분석 결과, 각 설교는 본문 낭독과 역사적 정황 설명에서 시작해 구속사적 전환을 거쳐 적용에 이르는 순서를 예외 없이 유지한다. 특히 국면 1과 국면 3에서 확인되듯, 구속사적 전환은 설교의 부속 장식이 아니라 적용에 선행하는 필수 관문으로 배치된다. 이는 오스본이 말한 해석학적 나선의 정방향 운동에 해당한다(Osborne, 2006: 22-24).

(iii) 적용의 수사학적 구조. 이 층위는 별도의 서술을 요한다. 세 편의 전사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지 선포—본문 주해—구속사적 전환—적용 질문—회중 간증’이라는 다섯 단계의 반복이다. 세 편 모두 세 개의 대지로 구성되며, 각 대지의 종결부에는 ‘적용 질문’이라는 정형 표지와 함께 2~4개의 2인칭 의문문이 배치된다. 예컨대 「네 의뢰가 무엇이나?」의 세 대지는 각각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4), “내가 아직도 의뢰하고 있는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8), “내 의뢰 목록 다섯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김양재, 2025a, 연구자 전사본: 11)로 마무리된다. 「반드시 건지실지라!」 역시 “나를 두렵게 하고 부럽게 하는 세상의 외침은 무엇입니까?”(김양재, 2025c, 연구자 전사본: 4)라는 동일 형식을 취한다. 적용 질문에 이어 회중의 간증이나 목장 나눔 사례가 삽입되면서, 설교자의 명제가 회중의 사례로 예증되는 순환이 완성된다. 이 수사 구조는 설교자가 적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전달하기보다 적용의 방향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회중에게 자기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질문 자체가 이미 설교자의 대지와 해석 틀 안에서 구성된다는 점은 V장 3절 (3)의 회중 해석 자율성 문제로 이어진다.

(iv) ‘오픈’의 정의적 구성요소. III장 5절에서 다섯 명제로 정식화한 오픈은 열왕기하 설교군에서도 반복 확인된다. 국면 2의 ‘아람 말과 유다 말’ 대비는 ①(감추지 않는 고백), 국면 4의 설교자 자기 자백은 ④(자기 죄를 보는 행위), 국면 5의 편지 펴 놓기는 ①과 ⑤(공동체적 회복)에 각각 대응한다. 서로 다른 성경 본문에서 동일한 개념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오픈이 특정 본문에서 우연히 도출된 적용이 아니라 설교자의 해석학적 전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 신학적·목회적 평가

1. 강점: 적용적 해석학의 한국적 정착

김양재의 큐티설교학이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첫 번째 강점은 본문의 신학적 무게와 회중의 실존적 절박함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II장 2절에서 유보적으로 제시한 진단—적용 우위의 큐티 독법이 본문의 신학적 맥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을 전제할 때, 김양재의 모델은 적용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적용에 구속사적 관문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한다. 두 번째 강점은 평신도가 따라올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구속사적 해석을 매개한다는 점이다. 그레이다누스와 클라우니의 이론이 신학생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김양재는 그것을 일반 회중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번역했다. 세 번째 강점은 교회론적으로 죄 고백 공동체로 회중을 결속시키는 효과다.

2. 강점: 공동체적 죄 고백의 설교적수행성

김양재의 설교는 말로 그치는 설교가 아니라 회중의 공적 죄 고백을 산출하는 수행적 설교다. 오스틴(J. L. Austin)의 화행 이론으로 보면, 그의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적(constative) 발화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는 수행적(performative) 발화다(Austin, 1962: 4-7). IV장에서 확인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기 교만 자백과 「재앙이 그쳤더라」의 가정사 언급은 이 수행성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텍스트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 주요 비평과 반론

동시에 다음 다섯 가지 신학적 긴장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각 비평을 익명의 통설이 아니라 실제 문헌이 제기한 논점으로 특정하여 검토하되, (3)과 (5)에 대해서는 반론을 완결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열려 있는 쟁점으로 남겨 둔다.

(1) 알레고리적 일탈의 위험

구약 본문을 회중의 가정·결혼 문제로 직선적으로 끌어올 경우, 본문의 역사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그레이다누스가 구약 설교의 항상적 위험으로 지목한 두 극단, 곧 알레고리와 모범론에 정확히 해당하는 문제이며(Greidanus, 1999: 161-166; 2018: 65-82), 채플이 강해 설교의 적용은 본문이 드러내는 타락한 상태에 대한 초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같은 위험을 거당한다

(Chapell, 2018: 50-53). 그레이다누스 자신이 인터뷰에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 알레고리의 경계를 반복해 강조한 것 역시 이 문제의 실천적 무게를 보여 준다(Hansen, 2011).

그러나 이 비평을 김양재의 설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IV장 3절에서 인용한 세 발화가 보여주듯, 그의 설교에서 구속사적 전환은 적용 이후에 덧붙는 신학적 장식이 아니라 적용에 선행하는 관문으로 작동한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건지시는 거예요”(김양재, 2025c, 연구자 전사본: 10)라는 발화는 본문 인물을 모방 대상으로 제시하는 모범론과 정반대의 방향을 명시한다. 「상한 갈대」에서 상한 갈대의 지시 대상이 애굽에서 회중 자신으로 전환되고 그 위에 이사야 42장 3절의 여호와와 종이 겹쳐지는 것 역시, 그레이다누스가 제안한 종적 주제와 약속-성취의 경로를 따른 이행이다.

다만 오픈이 다윗의 화목제(삼하 24장)와 히스기야의 기도(왕하 19장)에 지나치게 매끄럽게 등치될 경우, 서로 다른 시대·인물·정치적 맥락을 가진 본문들이 ‘수치의 자기 노출’이라는 단일 틀로 평면화될 위험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2) 사적 죄 고백과 공적 죄책의 신학적 분리 문제

제1회 THINK Forum에서 사적 죄 고백은 공적 죄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제시되었으나(윤지숙, 2018), 사회 구조적 죄책에 대한 신학적 분석은 여전히 후속 과제라는 비평이 있다. 다만 윤지숙(2018)은 포럼 취재 기사이므로 학술적 반론의 준거로는 제한적이며, 본 연구는 이를 쟁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로만 활용한다.

이 비평은 사적 죄 고백과 구조적 죄책을 대립시키지만, 김양재의 묵회 모델은 이 둘을 배타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THINK Forum의 명제는 제도적 차원의 공적 죄책 고백을 사적 신앙 공동체의 죄 고백 관행으로 흡수·혼동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지, 개인 회개가 사회적 변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개인의 공개적 죄 고백이 식민지 조선 사회 안에서 민족 공동체의 도덕적 갱신과 사회적 연대를 낳은 역사적 선례와 맥을 같이한다(이덕주, 2006: 143-156). THINK의 Nursing과 Keeping 원리는 말씀 적용의 범위를 개인 내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소그룹 목장—가정—이웃이라는 동심원 구조로 확장한다.

(3) 회중 해석의 다양성과 설교자 권위의 균형 — 열린 쟁점

설교자가 본문 적용의 방향을 강하게 제시할 때, 회중의 자율적 해석 공간이 축소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QT 운동이 본래 지향했던 개인의 직접적 성경 해석이라는 자율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가 확보한 자료는 이 비평에 대해 두 방향의 증거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편으로 IV장 6절 (iii)에서 확인한 적용 질문의 수사 구조는 설교자가 적용의 내용을 확정해 주지 않고 형식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세 편의 설교에서 적용은 모두 2인칭 의문문으로 종결되며, 답변은 회중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 질문이 이미 설교자가 설정한 대지의 틀 안에서 제기된다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회중 간증이 설교자의 명제를 예증하는 방향으로 배치된다는 점은, 자율성의 공간이 사전에 구획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당초에 브루그만이 설교자의 역할을 청중의 상상력을 여는 일로 규정한 논의 (Brueggemann, 1989)를 강한 적용 제시의 옹호 근거로 원용하였다. 그러나 브루그만의 논지는 규범적·산문적 설교에 대한 비판과 청중의 상상력 개방에 무게가 있으므로, 설교자의 적극적 적용 제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방향이 어긋난다. 오히려 브루그만의 문제의식은 이 대목에서 김양재 모델을 향한 물음으로 기능한다. 적용 질문이 회중의 상상력을 여는 장치인가, 아니면 이미 답이 정해진 수사적 질문인가? 이 물음은 설교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판정될 수 없으며, 회중이 실제로 어떤 적용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 열어 둔다.

(4) 심리치료적 목회와 복음적 목회의 경계 문제

공개적 죄 고백과 치유를 강조하는 목회 모델은 자칫 성경적 죄 개념을 심리적 상처의 언어로 대체하거나, 회중의 정서적 만족을 복음의 실질적 내용으로 혼동할 위험이 있다. 이 논점은 오랜 계보를 지닌다. 오든(T. Oden)이 케리그마와 상담의 관계를 물으며 목회적 돌봄이 복음의 선포에 근거해야 함을 논증한 이래(Oden, 1966), 아담스(J. E. Adams)는 성경 자체를 상담의 규범으로 삼는 권면적 상담을 제창하며 심리학적 범주의 무비판적 수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고(Adams, 1970: 41-49), 파울리슨(D. Powlison)은 이 운동의 전개와 그 내부의 자기 교정 과정을 사료적으로 정리하면서 죄의 언어와 고통의 언어를 어떻게 함께 다룰 것인가를 이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다(Powlison, 2010: 11-17, 233-243).

이 준거에서 볼 때 김양재의 공개적 죄 고백 모델에서 치유와 해방감은 복음의 목적이라기보다 복음적 회개와 관계 회복에 뒤따르는 결과로 제시된다. THINK의 Telling은 치유를 얻기 위한 독립된 방법론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숨기지 않고 말쑥과 십자가 아래 가져가는 신앙 행위다. 임상심리의 카타르시스와 외형상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델이 스스로 제시하는 신학적 방향은 자기 해방보다 하나님 앞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에 있다. 「상한 갈대」의 결어인 “환경이 아니라 구원입니다”(김양재, 2025b, 연구자 전사본: 12)는 이 구분을 설교자 자신의 언어로 확인해 주는 진술이다. 또한 김양재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인생 목적으

로 삼아야 한다고 반복 강조하는 것은 정서적 안위와 복음을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내부적 통제선으로 볼 수 있다(김양재, 2010).

(5) 오픈 개념 자체의 순환성 — 열린 쟁점

오픈이 말씀 묵상의 결과로 정의되면서도 동시에 다음 주 QT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면, 이 순환은 신앙 공동체의 지속적 갱신을 낳는 선순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정 해석 관행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검증되지 않은 채 고착되는 폐쇄 회로가 될 위험도 함께 지닌다.

이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재앙이 그쳤더라」에서 확인한 설교자 자신의 오픈이 유용한 시험 사례가 된다. 설교자가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정사를 공개함으로써, 오픈이 회중에게만 요구되는 일방적 규율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도 동일하게 노출되는 상호적 실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순환성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설교자의 자기 노출은 오픈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지만, 동시에 강단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노출의 진정성과 그 제도적 효과는 별개의 층위이며, 후자는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오픈의 내용이 공동체 밖의 신학적·목회적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모델의 장기적 건강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미해결로 남는다. 본 연구는 이 쟁점 역시 해소하지 않고 열어 둔다.

VI. 결론

본 논문은 김양재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큐티 실천을 적용적 성경해석학의 한 사례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을 허쉬의 의미/의의 구분, 가다머의 적용 개념, 리퀴르의 전유, 오스본의 해석학적 나선과 대비하여 정초하고, 그 변별점을 적용의 주체가 개별 독자가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구성하는 해석 공동체라는 점, 그리고 적용의 결과가 공개적 고백이라는 가시적 실천으로 외화된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의 THINK 목회 철학은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와 해석학적으로 유비되며, 본문—청중—적용을 잇는 삼중 해석 회로를 통해 구속사적 본문 읽기와 회중 삶의 해석을 통합한다.

열왕기하 18~19장을 다룬 일곱 편의 강해와 사무엘하 강해설교 「재앙이 그쳤더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 설교학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순차적 강해를 통한 내러티브의 통합이다. 둘째, 고대 이스라엘의 위기를 회중의 현재 위기로 번역하는 이중 코드의 적용이다. 셋째,

개인 묵상 행위인 QT를 목장 공동체의 공개적 고백과 연결하는 QT의 공동체적 제도화다. 넷째, ‘오픈’의 신학적 정식화와 그 구체적 실증이다. 아울러 전사본 분석은 ‘대지 선포—본문 주해—구속사적 전환—적용 질문—회중 간증’이라는 다섯 단계의 반복되는 수사 구조를 드러냈으며, 여기서 구속사적 전환이 적용에 선행하는 필수 관문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중심 주장인 ‘구속사적 통제’가 연구자의 해석적 부여가 아니라 설교 자체의 구조임을 보여 준다.

한국교회 설교학 전통 안에서 그의 기여는 (i) QT식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사화·심리화와 적용 정형화의 위험(김지찬, 2013: 261-290)에 대해 적용의 강도를 낮추기보다 구속사적 통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 (ii) 학문적 구속사 설교의 언어를 평신도 친화적 양식으로 번역한 점, (iii) 설교의 적용을 공동체적 죄 고백과 돌봄의 회로로 확장한 점에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알레고리적 일탈의 통제, 사회 구조적 죄책에 대한 신학적 진술, 회중 해석의 자율성 보장, 심리치료적 목회와의 경계 유지, 오픈 개념의 순환성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 가운데 셋째와 다섯째는 본 연구가 확보한 자료로는 판정할 수 없는 열린 쟁점으로 남겨 두었으며, 그 해소는 회중 수용에 대한 경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

후속 연구는 다음 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1) 김양재의 다수 설교집과 단행본을 포괄하는 통시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사례 연구적 한계를 극복하는 작업, (2) 우리들교회 회중의 QT 및 오픈 수용 양상에 대한 경험 연구(ethnographic study)를 통해 설교의 수행적 효과를 실증하는 작업, (3) 이동원·하용조·옥한흠 등 한국 주요 설교가들의 설교학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설교학 전반의 지형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궁극적으로 김양재의 큐티설교학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계속 발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한국교회 설교학이 오랫동안 씨름해 온 과제이며, 김양재의 모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응답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20). **읽는다는 것**. IVP.
- 김보경 (2014). “우리 교회는 목욕탕 교회, 저는 때밀이 목사입니다”. **목회와 신학**, 10월호. <https://www.qtm.or.kr/media/3>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10).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두란노.
- 김양재 (2015). “재앙이 그쳤더라”(삼하 24:16-25). <https://youtu.be/YSZqBQgyvx8> (2026. 8. 31. 검색).
- 바이블앤뉴스 (2016). “[저자와의 만남]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의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월 25일. <https://www.qtm.or.kr/media/15>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a). “네 의뢰가 무엇이냐?”(왕하 18:9-19). <https://youtu.be/MDt4eLgFG50>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b). “상한 갈대”(왕하 18:20-27). <https://youtu.be/BCy-sNv09Mg>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c). “반드시 건지실지라!”(왕하 18:28-37). <https://youtu.be/5snEIORmPks>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d). “살아 계신 하나님”(왕하 19:1-7). <https://youtu.be/qS38GMtjVyw>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e).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왕하 19:8-19). <https://youtu.be/Qyllt06dfvk>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f). “산헤립 때문에”(왕하 19:20-28). https://youtu.be/Kw1iSiL_1_k (2026. 8. 31. 검색).
- 김양재 (2025g). “보호하여 구원하리라”(왕하 19:29-37). https://youtu.be/9kDigN_y_BA (2026. 8. 31. 검색).
- 김지찬 (2013).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의 심리화(心理化)-사사화(私事化)와 적용의 정형화(定型化), **성경과 신학**, 67, 261-290.
- 김진영 (2022). “우리들교회 ‘큐티목회’는 어떤 것일까?”. **기독일보**, 10월 19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9489> (2026. 8. 31. 검색).
- 아멘넷 (2025). “김양재 목사의 ‘THINK 세미나’ 뉴저지 상륙(9/16)”. 9월 3일. 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4153 (2026. 8. 31. 검색).
- 우리들교회. 주일설교 팟캐스트. <https://wooridlesermon.podbean.com> (2026. 8. 31. 검색).
- 윤지숙 (2018). 제1회 THINK Forum, ‘사적 죄고백은 공적 죄책과 분리되어야’. **울림**, 10월 18일. <http://www.woolrimstory.net/news/articleView.html?idxno=252> (2026. 8. 31. 검색).
- 이덕주 (2006).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흥성사.
- 정성국·지형은·송인규 (2015).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 IVP.

- 정성구 (1987).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와 방법. *신학지남*, 214, 14-60.
- 큐티엠 (n.d.). THINK 목회 세미나 자료. <https://qtm.or.kr/content/seminar> (2026. 8. 31. 검색).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Zondervan.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larendon Press.
- Brueggemann, W. (1989). *Finally Comes the Poet*. Fortress.
- Chapell, B. (2018).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3rd ed. Baker Academic.
- Clowney, E. (1961).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R.
- Gadamer, H.-G. (2004). *Truth and Method*. 2nd rev. ed. Trans. J. Weinsheimer & D. G. Marshall. Continuum.
- Greidanus, S. (1999).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Eerdmans.
- Greidanus, S. (2018). Reflections on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22(3), 65-82.
- Hansen, C. (2011). "Preaching Christ from the OT: An Interview with Sidney Greidanus". The Gospel Coalition, February 17. Retrieved from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preaching-christ-from-the-ot-an-interview-with-sidney-greidanus/> (2026. 8. 31. 검색)
- Hirsch, E. D. (1967). *Validity i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 Oden, T. (1966). *Kerygma and Counseling*. Westminster.
- Osborne, G. R. (2006).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Rev. ed. IVP Academic.
- Powlison, D. (2010).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History and Context*. New Growth Press.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 Robinson, H. (2014).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3rd ed. Baker Academic.
- Vos, G. (1948).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Eerdmans.

적용적 성경해석학으로서의 큐티(QT): 김양재의 설교에 나타난 구속사적 본문 읽기와 삶의 해석

Quiet Time as an Applied Biblical Hermeneutic:
Redemptive-Historical Read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Life in the
Preaching of Kim Yang-jae

심양섭 (한국정치학회)

논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큐티(QT) 실천이 개인 경건의 도구를 넘어 구속사적 본문 읽기와 회중 삶의 해석을 통합하는 ‘적용적 성경해석학’의 한 사례임을 논증한다. 분석 대상은 2025년 3~6월 열왕기하 18~19장 강해 일곱 편과 사무엘하 강해 마지막회 「재앙이 그쳤더라」이다. 연구는 이 개념을 허쉬의 의미/의의 구분, 가다머의 적용, 리퀴르의 전유, 오스본의 해석학적 나선과 대비하여 정초하고, 적용의 주체를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구성하는 해석 공동체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변별성을 찾는다. 설교 전사본 분석은 ‘대지 선포—본문 주해—구속사적 전환—적용 질문—회중 간증’이라는 다섯 단계의 수사 구조를 드러내며, 구속사적 전환이 적용에 선행하는 관문으로 배치됨을 확인한다. ‘오픈’은 죄와 수치의 고백, 말씀 묵상의 결과, 일상에서 누적되는 훈련, 자기 죄를 보는 행위, 공동체적 회복 지향이라는 다섯 명제로 정식화된다. 끝으로 알레고리적 일탈, 사적 고백과 공적 죄책, 회중 해석의 자율성, 심리치료적 묵회와의 경계, 오픈의 순환성이라는 다섯 비평을 검토하되 두 쟁점은 열린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큐티(QT), 김양재, 우리들교회, 구속사적 설교, 적용적 성경해석학, THINK 묵회, 오픈(Open)